

일주문

여름시찰 수련회

도영 금산사 주지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여름 시찰 수련회'를 실시한다.



불교수화 강좌 열어

덕신 조계사 장재인 포교 원심회장은 8월 6일 저녁 7시 원심회 사무실에서 '불교수화 강좌' 개강식을 봉행한다.



단기 출가 수련회

법문 정토회 지도법사는 26일부터 3박4일간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여름 단기 출가 수련회를 개최한다.



'올바른 포교' 법문

현각 현정사 주지는 8월 6일 수덕사에서 전국불교연합회 회원들에게 '올바른 포교에 대하여'란 주제로 법문한다.



우수 위탁기관 선정

경률 목동청소년수련관 관장은 '2001년 민간위탁운영 분야 개선 노력도 부문' 우수 기관 운영자로 선정됐다.



나눔의 집 그림전 참석

능광 나눔의 집 원장은 미국 캔사스시에서 열리는 '나눔의 집 할머니 그림 전시회'에 참석차 13일 출국했다.



심인종교 정교실장

일학 대구 사복심인당 주교는 진각종립 심인종교등학교 정교실장으로 임명돼 1일 임명장을 받았다.



동산불교대 입학식 봉행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은 8월 4일 오후 5시 동산불교대학관에서 제19기 동산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한다.



요가수련원 개원식

이태영 한국요가연수원장은 28일 정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2리에서 요가수련원 개원식을 갖는다.



'불교사진 촬영' 강의

김우영 불교사진연합회장은 28-29일 여주 신륵사에서 여름세미나를 개최하고 '불교사진 촬영' 강의를 연다.



방한무산 아쉬운 한국인에 달라이 라마 특별 법문

“사랑과 자비 키울때 평화 온다”

본지는 16일 락도르(Lhakdor) 달라이라마 비서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자우편을 받았다. 이 편지는 본지가 6월 25일, 달라이라마의 방한 무산에 상심한 한국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는가를 묻는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한 답장이다. 락도르 비서관은 이 편지에서 "달라이라마 방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내면을 개발해, 물질적 발전에 균형을 맞추자(Balancing Material Progress with Inner Development)"라는 제목의 특별 법문을 보내와 방한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대신했다. 법문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오늘날 우리는 나 아닌 다른 모든 존재의 특성을 수용해야 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은 고립되어 있지만, 각 고립된 존재들은 서로 내면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현대의 갈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풀어야 합니다. 갈등은,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로 있지만 하나로 묶여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친 탓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인종, 종교, 이념 등의 다양성에 쉽게 함몰되고,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우리는 다른 세계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능력의 사용을 거부한다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쓰는 만큼 우리 자신의 삶 역시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닫힌 마음을 열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이는 곧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주는 만큼 받는다는 것'이 것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첫번째 원칙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사랑과 자비를 찾아내고 키워나가는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는 평화롭고 온건한 것이지만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교리나 이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경제적 부와 인력협탄

을 위해 선한 덕목, 즉 선법과 같은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타주의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또한 종교적 수행의 최종 목표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기질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리나 철학, 수행법 등이 공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리나 철학 등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별 존재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길을 충실히 따른다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되고 또 과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폭력과 대화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서로 다른 존재끼리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회란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존재들이 모여 갈등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재로써 신뢰를 쌓아간다면, 우리 사이에 놓인 폭력을 가지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논쟁과 싸움은 우리 모두를 약화시키고 움츠러들게 할 것입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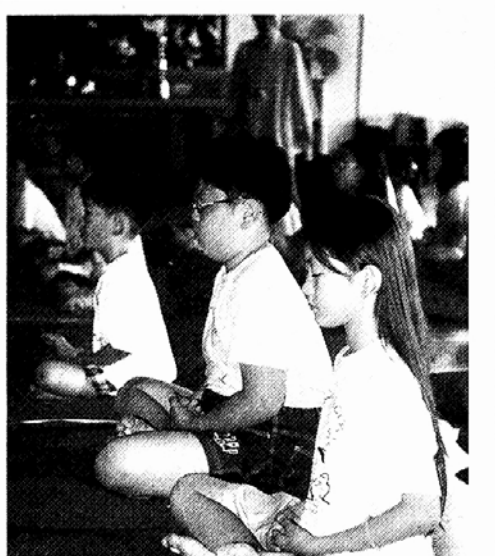
교내 어디서나 사이버 접속

동국대, 도서관 등 121곳 인터넷망 구축



◇학교 교정에서 학생들이 무선 인터넷을 접속하고 있다.

동국대생들이 캠퍼스 전역에서 자유롭게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동국대(총장 송석규)는 최근 국내 대학 최초로 대학 교정 전역에 무선 인터넷망 시설공사를 마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무선 랜카드를 장착한 노트북이 있으면 교정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접속 웹서핑을 할 수 있게 됐다. 11Mbps 속도로 제공되는 무선인터넷망은 옥외뿐만 아니라 중앙도서관(12곳), 상록원(6곳),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18곳) 등에 모두 121개의 액세스 포인트를 개설해 각종 회의, 학습, 멀티미디어형 수업 등도 가능하게 됐다. 20일 개최된 전자불전연구회 한국불교전서 전신화 시연회에서도 이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했다. 정보관리실 이종욱(정보관리학과 교수) 실장은 "무선인터넷망의 이용도 추이를 검토하여 실내 학습공간에도 계속 무선 인터넷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공용 노트북을 구입하여 대여해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정보관리실은 무선랜 카드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jama@buddhapa.com



참선 공부하는 문수동자들

"눈을 감으면 졸리니까 눈을 감지 말고 앞을 응시하세요." 20일 금강정사 대웅전에 모인 50명의 문수동자들이 정수 스님(금강정사 어린이 지도법사)의 지도를 받으며 참선 공부를 하고 있다.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지홍스님)는 19일부터 2박3일간 '제21차 여름불교학교'를 열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a.com



동국대 역경원 개원 37돌 법회

동국대역경원(원장 윌슨스님)은 20일 동국대 정각원 법당에서 '동국대역경원 개원 37주년 기념법회 및 한글대장경 원간 회합식 발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석주 역경원 후원회장을 비롯해 월은 역경원장 스님, 혜자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송석규 동국대 총장, 일면 봉선사 주지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NGO 여름명상

재가연대 NGO활동가 명상캠프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2일부터 14일까지 20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 부석사에서 'NGO활동가를 위한 여름 명상 캠프'를 열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주경스님(부석사 주지)의 '참선과 수행이야기' 특강을 비롯해 조 펠스님의 '티베트의 지혜와 명상 강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진각종 서울교구 한마음대동제

진각종 흥강암의 서울지부는 탐구심인당 금강회 주관으로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빛은행 동농운동장에서 제6회 서울교구 한마음 대동제를 갖고 즐다리기, 단체줄넘기, 이어달리기, 족구, 장기자랑 등 다양한 잔치 한마당을 펼쳤다. 이날 대동제에는 진각종 각해 총인, 효암 통리원장을 비롯 서울교구 스승, 신도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여불련 '여성 경제활동' 세미나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14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제12회 여성의 경제활동'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요식 한일여성친선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윤용숙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남상민 한국예절문화원 원장, 하영에 한중여성협의회 회장 등 여성불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2001년도 하반기 정토불교대학 개강 (2년제)

정토불교대학은 부처님의 근본사상이 왜곡되지 않은 '바른불교', 어렵고 난해하지 않은 '쉬운불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생활불교'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년, 4학기 과정)

Table with 2 columns: Course Name and Description. Includes '불교입문과정', '불교와 사회', '근본불교', etc.

Table with 4 columns: Location, Course Period, Day, and Class Time. Lists locations like Seoul, Busan, Daegu, etc.

원서교부 및 접수처, 모집대상 및 입학금. 서울정토불교대학, 부산정토불교대학, 대구정토불교대학, 대전정토불교대학, 청주정토불교대학, 마산정토불교대학.

2001년도 하반기 정토불교통신대학 개강 (2년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정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근본사상을 기본 교과내용으로 하면서 사회적 실천대안을 새롭게 제시하신 법륜스님께서 정토불교통신대학에서 강의합니다.

-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사회, 아름다운 자연을 일구는 법륜스님의 통신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입학대상: 성인 남녀 누구나 (연령, 학력 제한 없음) 2. 교육기간: 2년(4학기) 3. 특전사항: 2년 전과정을 마친사람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교시를 거쳐 포교사자격이 주어집니다. 4. 접수기간: 7월 16일 ~ 9월 24일 (일요일) 5. 접수 및 문의: 정토불교대학 사무국 전화: 02-587-8994 / 전수: 02-587-8998 6. 입학식·소집일: 2001년 9월 9일 (일요일) 오후 1시, 정토외관 7. 교육방법: 법륜스님께서 강의하신 녹음테이프와 교재가 우송됩니다. 과목별로 과제물을 제출하여 평가받습니다. 철저한 학사관리를 합니다. 8.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환관 사진 2매 9. 등참비: 입학금 10만원, 한학기 20만원 (분할 가능) \* 국민은행 823-01-0148-855<이지원> 10. 교과내용: 심선적 불교사상, 인간본다, 근본불교, 불교의 변천사, 법신계, 신심명, 반야심경, 육주단경, 원경과 불교, 복지와 불교, 평화와 불교, 동인력 불교, 원·수행의 수행, 일 수행의 일, 마음 다스리는 길, 민익의 역사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1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시명강 있는 포교사인을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9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불교학과, 불교미술학과, 우리종교학.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4. 입학일시: 2001년 8월 4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